

07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전 세계 한글학교 교장·교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20년 보수공사 끝내고 본모습 찾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일제가 덧바른 시멘트 걷어내... 국내 단일문화재 중 최장기간 수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석탑인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국보 제11호)이 장장 20년에 걸린 보수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탑 유산 중 하나인 이곳은 1998년 구조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수리가 결정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향가 ‘서동요’ 주인공이자 백제 후기에 중흥기를 이끈 무왕(재위 600~641) 시대에 지은 건축물이다. 미륵사를 구성한 3탑 3금당 중 서탑인 이 탑은 목탑처럼 석재 2천800여 개를 짜 맞춘 형태로 석탑 양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16세기 전후 절이 황폐화하고 버락을 맞은 석탑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어긋난 상태로 자리를 지켰다.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붕괴한 부분을 시멘트로 땀질해 응급 보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01년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 미륵사지 석탑은 6월 20일 높이 14.5m, 6층 탑으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가설 시설물 안에 갇혀 있지만, 당장 앞으로 넘어질 듯 위태위태했던 옛 모습과 비교하면 당당한 위용이다. 오랜 세월의 풍화 속에서 변색하거나 마모된 옛 부재(탑 재료)와 새 부재가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외관은 다소 얼룩덜룩하다.

해체 보수를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옛 부재와 새 부재 비율이 각각 65%, 35%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본래 25m 높이로 추정된다. 18세기 기행문 와유록(臥遊錄)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7층까지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탑을 어떠한 상태로 보수 복원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6층까지 세우는 부분복원안으로 결론 났다. 이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는 단일문화재로는 최장기간 체계적인 수리가 진행된 사례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230억 원으로, 승려문 복원(250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창\]](#)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6월 20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리를 마친 석탑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석탑의 동북 측면. (사진·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2. 버락을 맞아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시멘트를 땀질해서 응급 보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 02 한국의 열 20년 보수공사 끝내고 본모습 찾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일제가 덧바른 시멘트 걷어내... 국내 단일문화재 중 최장기간 수리
- 04 특집 전 세계 한글학교 교장·교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한인 차세대 육성 위한 교수법 배우고 운영 노하우 공유
- 06 화제 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남북러 철도 연결 공동연구 합의 푸틴 "판문점선언 채택 환영" 입장 밝히... 문 대통령 '방한 초청'도 수락
- 08 기획 동북3성 떠나 중국 대도시, 한국, 일본, 미국으로... 변화하는 조선족 동포사회 금의환향은 옛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거의 없어
- 10 글로벌 코리안 현지 한국대사관 공모전서 최우수상 받은 정문희·김남주 씨 일본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한 에이산 그룹 장영식 회장 캐나다 정치·경제 중심 온타리오 주 노인복지장관에 임명된 조성준 씨
- 12 지구촌 통신문 베를린서 열린 6·15 공동선언·판문점 선언 축하행사, 남북이 한데 어우러져... 북 청소년 창작단 '깜짝 공연'... 정범구 주 독일대사 "심정적 통일된 듯"
- 13 한민족 공감 조선족 CEO들 "남북경협 가고 역할 하겠다"... 중국 한상포럼 개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남북 모두 경협 관심 높아... 투자 문의 잇따라"
- 14 동포소식 LA 한인타운 분리안 투표 부결... 반대 98.5%로 한인 결집력 과시 외
- 17 동포 캘린더 과테말라한인회, 화산 피해 지역에 성금·구호품 전달 외
- 18 유공동포 이산가족 상봉·귀국 운동에 헌신... 사할린 동포의 대부 박노학 회장 사할린 거주 한인 편지, 고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
- 19 주목! 차세대 '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한 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 박세은 씨 프랑스 파리서 활동... 한국 무용수론 네 번째
- 20 OKF 뉴스 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30명 초청연수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김은경(호주)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 24 고향의 맛·멋 대나무 향기 은은한 담양의 향토 건강식 '대통밥' 딱갈비 등 풍성한 반찬과 요리로 정식 밥상은 '머거리 향연' 방불케 해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42개국 140명의 교사를 초청한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40개국 112명이 참가한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097, 팩스: 82-2-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장·교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한인 차세대 육성 위한 교수법 배우고 운영 노하우 공유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와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최하는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전 세계 42개국 140명의 한글학교 현직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열렸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글학교 교사 개회식에서는 주진오 역사박물관장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주 관장은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재외동포였다는 사실에 기초해, 독립운동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재단과 협력해 '한국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말 우리글이 다음 세대를 이어줍니다'라는 주제로 열

린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연령별 교수법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 자료 작성,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설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로의 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특히 국내 학교에서 현재 활용 중인 교수법을 체험해 보고 영화나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수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도 학습했다.

또한 천안 독립기념관과 파주 통일전망대를 둘러보며 한국 역사와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도 심화했다.

한글학교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전 세계 40개국 한글학교 교장과 한글학교협의회장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분반모임과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 잇는 인재 육성”

“네팔인들은 외국에 나가 일하고 싶은 1순위로 한국을 꼽습니다. 한류 영향도 있어서 한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이곳에서 자라는 한인 차세대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정체성 확립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팔 한글학교 김은영 교사

네팔 유일의 한글학교인 카트만두 한글학교에서 22년째 교사로 재직하는 김은영(47) 씨는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공주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6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봉사단으로 네팔에 첫발을 디딘 그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견된 남편을 만나 현지에 정착했다.

봉사단으로 가자마자 한글학교 교사를 맡아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쳤고, 1996년 네팔 언어대학에 한국어과 개설에 앞장서 2년간 한국어 강의도 진행했다.

낙후된 교육환경과 가난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현지 아이들을 도우려고 남편과 함께 현지 학교와 보육원을 세웠고 매주 한국어 수업 봉사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한글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가장 기뻐던 일이 “지난 5월에 신축한 교사로 입주한 일”이라고 털어놴다.

2015년 대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일부 파손되거나 금이 가면서 운동장에 세운 임시 막사에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학교를 새로 지었다.

김 교사는 “한인타운 근처에 대지를 새로 마련해 2층 건물로 지은 학교는 건평 640㎡에 14개 교실과 도서실·교무실·화장실 등을 갖췄고 지진에 강한 건축 공법과 자재를 사용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운동회 등 각종 행사도 거뜬하게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 대부분이 학부모라 내 자녀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놓여있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인 차세대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4

효율적인 한글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한인들의 뿌리 교육에 대한 역량을 제고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전 세계 한글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한글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 연수를 같은 시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한글학교 교사 연수와 교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전 세계 250여 명의 한글학교 교장과 협의회장, 교사들은 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글학교 미래포럼’을 열고 한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상진 외교부 영사실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한글교육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민족의 뿌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로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소양도 쌓고 인맥도 구축하는 기회가 됐다”며 “교사의 역량 강화가 동포사회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 재단은 7월 2~9일 42개국 140명의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18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2. '2018 한글학교 교장·협의회장 초청연수'에 참가한 교장 등은 우수 운영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3. 한글학교 교장과 협의회장, 교사들은 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글학교 미래포럼'을 열고 한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4. 한글학교 교사들은 연수기간 파주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모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도 심화했다.



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남북러 철도 연결 공동연구 합의

푸틴 “판문점선언 채택 환영” 입장 밝혀… 문 대통령 ‘방한 초청’ 도 수락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6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것을 포함해 32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는 공동이해에 근거해 ‘한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우호적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TSR과 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호적 여건’이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축으로 한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진척돼 평화 무드가 무르익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 어느 시점에서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가스·철도·전력·항만·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다리’의 분야별 세부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1.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대궁전 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오후 러시아 하원을 방문,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숙소 호텔에서 열린 한-러 우호 친선의 밤 행사에서 이선석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월 23일 오후 러시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관람한 뒤 아쉽게 패한 한국대표팀 라커룸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수락했다.

문 대통령 첫 러시아 하원 연설... “남북러 협력 강조”

문 대통령은 6월 21일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하원(두마)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 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할 것이며 러시아와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남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가스관·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국 간 철도·에너지·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새롭게 이웃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 손흥민 격려, FIFA 회장과 환담

문 대통령은 6월 23일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한국 대 멕시코 경기가 열린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 귀빈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붉은 머플러를 두르고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 대표팀이 1대2로 패하자 선수 라커룸으로 이동해 선수들과 코치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많이 아쉬울 텐데,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특히 손흥민의 후반 만회 골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멕시코 경기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창**

동북3성 떠나 중국 대도시, 한국, 일본, 미국으로... 변화하는 조선족 동포사회

금의환향은 옛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거의 없어



“베이징의 조선족은 자녀뿐만 아니라 고향의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함께 삽니다. 동북 3성에서 가족이 다 옮겨온 거지요. 이제는 여기를 고향으로 여기며 삽니다.” 리주환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달라진 조선족 사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 금의환향하려는 성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돌아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래 조선족은 전통적 거주지인 동북 3성을 벗어나 중국 주요 대도시와 한국, 일본 등에 새로운 집거지를 형성했다. 수교 이전에는 조선족의 97%가 동북 3성에 거주했으나 지금은 27%만 고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기반도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상업, 서비스업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조선족 출신인 리상철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만주의 조선인”이 ‘중국의 조선족’이던 시대를 지나 ‘동북아의 조선족’, ‘글로벌 조선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대도시 50만 · 한국 80만 · 일본 10만... 140만 명이 동북 3성 ‘탈출’

한인은 1860년대부터 기근과 수탈을 피해 중국으로 이주했고 일본 강점기에는 그 행렬이 더욱 늘었다. 중국 정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 정착한 한민족을 ‘조선족’이라 칭했다.

1952년에는 지린성에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지정하면서 고유 언어와 풍습을 허용했다. 동북 3성에 머물러 살던 조선족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를 계기로 내륙과 연해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중수교는 조선족이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183만(중국정부 2010년 통계) 조선족의 중국 내 분포도를 보면 베이징 등 수도권 10만, 칭다오 등 산둥성 25만, 상하이 5만, 광둥성 5만 등 동북 3성 이외 지역에 50만여 명이 산다. 해외로도 대거 빠져나가 한국에 70여만 명, 일본에 10여만 명, 미



1.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최근 8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조선족타운.
2.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수이커우촌은 조선족 인구가 98%였으나 주민 다수가 출국하거나 대도시로 떠나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중국판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중심지 옌지(延吉)시 전경.
4. 중국 전역에 34개 지회와 1만여 명의 기업인 회원을 거느린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주최한 조선족기업인 경제교류회.
5. 감소한 조선족 소학교.
6. 선양 개천절행사.

국과 유럽 등 기타 지역 5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향인 동북 3성에는 50만 명도 남지 않았다. 한국 내 거주 조선족 인구는 최근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수교 초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필수 고용 인력이 조선족이었다. 양국 언어와 문화를 모두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시 주로 통역이나 중국인 노동자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사업에 빨리 눈을 뒀고 날이 갈수록 창업자가 늘었다.

이장섭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교수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은 1만 7천500개에 달한다. 2007년에 결성된 중국조선족기업가연합회(회장 표성룡)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선양 등 중국 주요 도시에 34개 지회와 6천 개 회원사,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족이 일본으로도 많이 건너간 것은 동북 3성에서 성장한 40대 이상의 대부분이 중·고교에서 제1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에는 현재 800여 개의 조선족 기업이 있고 이 가운데 150개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산하 치바지회의 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0%, 무역 및 서비스업 40%이다.

단순노무직서 전문직 등으로 다변화... “역할 확대하려면 역량 더 키워야”

동북 3성을 떠난 조선족이 가장 대규모로 이주한 곳은 모국인 한국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공사장이나 식당 등의

3D업종에 종사했고 3~5년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학계·금융·무역업·문화예술·법조계·공무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사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으로 성공한 조선족도 적지 않다.

한중무역협회(회장 김용선)에 따르면 국내의 조선족 기업은 1만여 개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요식·서비스업이 70%로 가장 많고 무역·유통 25%, 제조업 5% 등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족 범죄 등의 영향이 크지만 사실 국내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다.

조선족이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일각에선 이들의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한·중·일 3개국은 물론 북한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이 3개국의 가교 또는 남북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의 위상이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을 선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리상철 교수는 “유대인처럼 경제적 성공 등을 바탕으로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며 영향력을 인정받아야 한·중·일 가교나 동북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

‘베트남 판잣집에 온돌방을’... 구들장 프로젝트 시동 건 한국엄마들 현지 한국대사관 공모전서 최우수상 받은 정문희·김남주 씨



“베트남 북부는 겨울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워요. 추운 날씨에 바지도 없이 오돌오돌 떨면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 바람이 곳곳에서 들어오는 집에 사는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하노이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한국어·베트남어 강사로 일하는 정문희(36·사진 가운데) 씨에게 베트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대학생이던 2006년 하노이에서 봉사하며 1년을 보냈고 베트남 유학을 준비하던 중 결혼을 해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하노이에 사는 한국인들과 힘을 합쳐 매년 북부 소수 민족에게 옷과 의약품을 전달해 온 정 씨는 어느 날부터 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매

서운 추위 속에도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언젠가 TV에서 본 한국의 온돌 명장 안진근 씨가 떠올랐고 어렵게 용기를 내 안 명장에게 연락했다.

온돌 기술 전수를 흔쾌히 허락받은 정 씨는 함께 봉사 활동을 하던 김남주(35·사진 오른쪽) 씨와 의기투합해 기획안(팀명 ‘G&P’, 프로젝트명 ‘베트남 북쪽 소수민족 마을 구들장 기술 전수’)을 만들었고 지난 4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2018 베트남 동포 모두가 공공외교관’ 공모전에 이를 제출했다. 결과는 최우수 프로젝트 당선이었다. 소수 민족에게 한국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평범한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堂堂하게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두 사람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안 명장에게 받은 구들장 교육 자료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뒤 9월부터 소수민족 거주지에 프로젝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들장 설치 기술 교육은 11월 말부터 약 3주간 진행된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한 집이라도 더 온돌을 설치하기 위한 빠듯한 일정이다. 정 씨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이지를 담글 때 맨 위에 올리는 누름돌처럼 한국과 베트남 외교에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분의 적극적인 협조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국 청년 100명이 회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일본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한 에이산 그룹 **장영식** 회장

재일동포 장영식 에이산 그룹 회장이 5월 23일 도쿄 미나토구 핫포엔(八芳園)에서 열린 일본 도쿄 한국상공회의소(상의)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20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뉴커머(신정주자) 출신 기업인이 올드커머가 주축인 상의 회장에 재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상의

는 개인사업가와 법인 등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재일 동포 상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회장은 재일 상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

장 회장은 “고국 청년 100명이 회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조국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도쿄 상의를 지향하며 2년간 달려왔다”며 “앞으로 그 완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베트남 호찌민시 경제 시찰, 특별영주자·뉴커머·국적변경자 등을 아우르는 ‘원 코리아’ (ONE KOREAN) 개념의 회원 확충, 일본인 준회원 확보 등의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90만 명으로 추산하는 재일동포 사회는 일본강점기에 건너 온 이들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올드커머, 1980년대 이후 진출한 뉴커머로 나뉘어 있다. 장 회장은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 일본 내 21개 지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연간 3

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8년 전 도쿄 상의에 가입해 이사과 상임이사, 부회장을 거쳤고, 현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수석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민족학교인 동경한국학교 육성회장을 4년간 지냈고, 초등부 교사 신축에 기여했다. 동경한국학교 이사로서 제2한국학교 건설에도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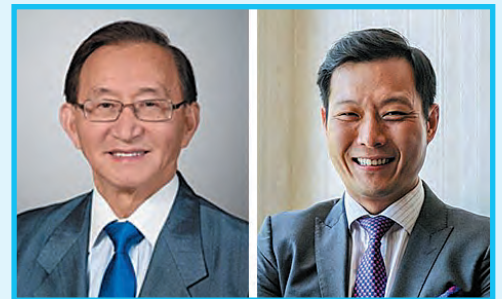
“캐나다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

캐나다 정치·경제 중심 온타리오 주 노인복지장관에 임명된 **조성준** 씨

캐나다 온타리오 주 노인복지장관에 한인 조성준(82·사진 왼쪽) 주 의원이 임명됐다. 캐나다에서 한인이 주 정부 장관에 오른 것은 조 주 의원이 처음으로 이민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6월 29일 장관에 취임한 그는 “한인 이민사에서 처음 주 장관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인사회가 뒷받침해준 힘이 크다. 앞으로 캐나다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장관은 3천500만 캐나다 달러(3천억 원)의 예산으로 220만 명의 노인 복지를 총괄한다. 인구 1천345만 명의 온타리오 주는 주도인 토론토를 중심으로 수도 오타와, 해밀턴, 키치너, 런던, 윈저 등을 포함하는 캐나다의 정치·경제 중심 지역이다.

조 장관은 2016년 캐나다에서 한인 최초로 주 의원에 올랐다가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당 소속으로 출마해 50%가 넘는 지지율로 재선했다. 앞서 1991년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됐고, 주 의원 선거까지 내리 8선에 성공했다. 1967년 캐나다에 이민해 접시닢이, 청소부, 광부 등으로 일하다 토론토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과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1988년 연방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3년 뒤 토론토



시의회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온타리오 주 총선에서는 조성준 의원과 함께 조성훈(영어명 스탠 조·40·사진 오른쪽)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조성훈 당선자는 한인 2세로는 처음으로 퀸스파크(주의회)에 입성했다. 윌로우데일 지역에서 4선 후보를 물리친 그는 “조성준 의원이 한인 차세대들의 정계 진출 문을 열었다”며 “저는 후배들이 더 많이 정계로 나가도록 길을 닦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로열르페이지 뉴컨셉 한인부동산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그는 평화마라톤과 한가위 한인대축제 등에 사회자로 활동하며 인맥을 쌓아왔다. **창**

베를린서 열린 6·15 공동선언·판문점 선언 축하행사, 남북이 한데 어우러져...

북 청소년 중창단 ‘깜짝 공연’... 정범구 주 독일대사 “심정적 통일된 듯”

“베를린에서는 심정적으로 통일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가 이같이 축하를 시작하자 박남영 주독 북한대사는 크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6월 9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및 판문점 선언 축하행사에서 남북이 한데 어우러졌다. 남측 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박 대사 등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이다.

행사장인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에 도착한 박 대사의 얼굴에는 다소 긴장감이 흘렀다. 박 대사가 부임 후 남측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 앞에서 기다리던 정 대사 및 남측 교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내 미소를 띠며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박 대사는 방명록에 ‘민족 공동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자’고 정성을 들여 적었다.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정 대사와 박 대사는 박수를 치면서 서로 마주 보았다.

행사에서는 남측 청소년들의 공연에 이어 예고 없이 북측 청소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200여 명의 참석자를 놀라게 했다. 박 대사는 곧바로 무대 위로 나아가 이들을 소개하면서



6월 9일 독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 및 판문점 선언 축하행사에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왼쪽)와 박남영 주독 북한대사가 참석, 대화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6월 9일 열린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박남영 주독 북한대사가 북한 청소년 중창단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에서, 길가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를 것”이라며 박수를 부탁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북측 청소년 다섯 명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을 불렀다.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을 부르던 중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 대목에서 북측 청소년들은 울먹이기도 했다. 이들은 앙코르 요청을 받고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를 부르자 교회 안에선 환호성이 쏟아졌다.

북측이 문화공연까지 참여해 한반도에서 6·15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달리 베를린에서는 사실상 남북이 공동행사를 열게 된 셈이다. 정 대사는 축하에서 “박 대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장의 무기까지 꺼내놓으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렵게 이어진 끈을 다시는 놓치지 말고 더 튼튼한 동아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축하에서 “민족분열은 전쟁의 참혹함과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줬다”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한 이웃 동포 여러분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마음을 갖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행사장에서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교민들이 박 대사와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한동안 행사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조선족 CEO들 “남북경협 가교 역할 하겠다”… 중국 한상포럼 개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남북 모두 경협 관심 높아… 투자 문의 잇따라”

“20년 가까이 대북 투자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조선족 기업인인 전규상 길림천우건설 그룹 회장은 7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중국 한상 CEO 포럼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속도를 내는 남북 경협에 조선족 CEO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 회장, 신동일 랑시그룹 회장, 표성룡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 회장 등 24명의 조선족 고위급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7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중국 한상CEO 포럼에 참석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맨 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조선족 기업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 회장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냐는 질문에 “북한과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 문의를 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북한 당국자들은 북한의 경제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되면 북한의 경제 발전과 남북경협, 대북 지원 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직접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회장은 이어 “한국이 이해하는 북한과 우리가 실제 보고 느낀 북한하고는 차이가 크다”면서 “조선족 기업인들은 약 20년 간 대북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지만, 여러 제재와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평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기에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조선족 기업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회장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가장 유망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정을 해 본다면 첫째는 북한에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면서 “전력,

철도, 발전소 등 기초 인프라가 가장 먼저 정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투자 이후 2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은 북한밖에 없다”면서 “이미 한국 기업과 북한 측 역시 경협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권순기 중국 아시아경제개발협회 회장은 “중국이 올해 개혁 개방 40년이 됐는데 개방 초기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실패하는 일이 많았는데 대북 투자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역할이 컸듯이 북한이 개방한다면 조선족 기업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족 기업인들은 대북 투자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었다.

포럼을 주최한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17차 세계 한상대회에 북한 경제 관료들을 초청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면서 “올해 한상대회에 북한 경제 관료들을 초청해 한 번 선을 보이고 이후에 북한 경제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창**

LA 한인타운 분리안 투표 부결... 반대 98.5%로 한인 결집력 과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한인 공동체 지구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을 쪼개 방글라데시 타운(리틀 방글라데시)으로 나누는 주민 투표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LA 한인타운 주민의회 분리안이 6월 19일 주민 투표에 부쳐졌다. 개표 결과 관내 하버드 초등학교와 파운더스 교회에서 진행된 현장투표와 우편투표에 참여한 1만9천126명 중 98.5%에 해당하는 1만8천844명이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1.5%에 불과한 282표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한인타운 내 3가와 버몬트, 노르망데일 애버뉴



LA 한인타운.

사이에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 공동체인 리틀 방글라데시를 별도의 커뮤니티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로 진행됐다.

LA에는 80여 개의 다민족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한인타운 외에도 일본 타운인 리틀 도쿄, 중국 공동체인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이다. 방글라데시계 주민들은 최근 상권을 키우면서 한인타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리틀 방글라데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지매체 LA이스트닷컴은 “한인들이 엄청난 결집력을 과시해 압도적인 표차로 분리안을 좌초시켰다”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 3시간씩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교민의 동포애... 긴급수혈 요청에 수십 명 자원

캄보디아에서 한인이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민 수십 명이 헌혈하겠다고 나서 2차레나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0일 캄보디아 북부 시엠레아프에 사는 김 모(62)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도 프놈펜으로 이송된 뒤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현지 한인회로 왔다. 김 씨가 응급수술 후 5명분의 수혈이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현옥 회장 등 한인회 간부와 교민 15명이 잇따라 김 씨가 입원한 칼렛 병원으로 달려갔다.

한인회 이정수 농업이사과 강용희 사무국장 등 5명이 곧바



6월 10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헌혈하는 현지 동포들.

로 헌혈해 김 씨가 위기를 넘겼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헌혈하겠다고 자원한 교민은 수십 명이었다고 신청한 한인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전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교민 1만5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6월 13일 오후 김 씨에게 추가 수혈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전화가 한인회로 걸려왔다. 그러자 한인회는 급히 소셜미디어로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헌혈을 자원한 교민 4명이 병원으로 달려가

피를 나눴다. 덕분에 김 씨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한 위원장은 “우리 교민이 이렇게 뜨거운 동포애를 발휘해 줄지 몰랐다”면서 “김 씨가 쾌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현안 제대로 알자” LA서 차세대 한인 통일캠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마당에 재미 동포사회의 차세대 구성원들도 함께 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6월 16일 미 남서부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 풀러턴에서 열린 ‘2018 차세대 통일캠프’에서 이렇게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북미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재미 동포사회의 고교생·대학생 등 100여 명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 자리였다. LA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 K-팝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 풀러턴의 한 교회에서 6월 16일 한반도 현안 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2018 차세대 통일 캠프가 열렸다. (사진·LA 총영사관 제공)

외교부가 재외동포 파트너십 사업으로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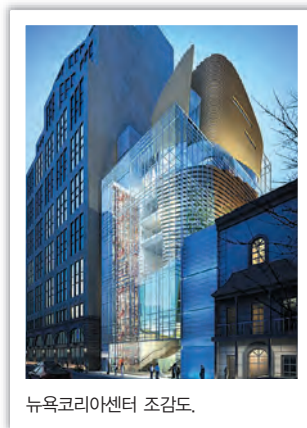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박사는 ‘한반도 통일과 역사’ 강연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한반도 역사와 통일의 당위성을 조명했다. 한반도 역사에 생소한 교포사회 차세대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목적이라고 최 박사는 설명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그려보

는 시간도 가졌다. 황 부총영사는 “차세대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현안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차세대 구성원들을 육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 전진기지’ 뉴욕코리아센터 첫 삽… 맨해튼에 2020년 완공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류 전진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6월 28일 뉴욕 맨해튼 32번가에서 ‘뉴욕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뉴욕코리아센터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박효성 뉴욕총영사, 오승제 뉴욕한국문화원장, 현지 교민, 뉴욕시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첫 삽을 뜨는 행사로 공사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09년 건립 부지를 매입한 지 9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총 7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뉴욕코리아센터는 2020년 7월 완공된다.

한국문화를 알리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뉴욕, 뉴저



뉴욕코리아센터 조감도.

지 주 일대 한인 동포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전시·교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천212㎡ 규모의 뉴욕코리아센터에는 176석 공연장과 전시실, 도서자료실, 강의실 등이 마련된다. 또 뉴욕한국문화원, 관광공사 뉴욕지사 등이 입주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2006년부터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재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예술 유관기관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코리아센터 건립은 로스앤젤레스(2006

년), 베이징(2007년), 상하이(2007년), 도쿄(2009년), 파리(2018년 12월 완공 예정)에 이어 뉴욕이 여섯 번째다.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최고위직 지낸 '조선족 우상' 조남기 장군 별세

'조선족의 우상' 조남기(趙南起) 퇴역 장군이 6월 17일 베이징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중국군 최고위 계급인 상장(대장) 출신의 조 장군은 당 중앙위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부총리급), 인민해방군 총후군부장(군수사령관 격)직을 역임하면서 조선족은 물론 55개 소수민족을 통틀어 중국 정계 및 군부 최고위직에 올랐다.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1940년 14세 나이로 독립투사인 조부와 부친을 따라 중국 지린(吉林)성으로 이주했다.

6·25전쟁 참전 후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일하며 1960년대 지린 성 연변군구 정치위원(사단장급)으로 승진했다. 문화대혁명 때 모함을 받아 곤욕을 치렀으나



2004년 6월 7일 충북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의 고(故) 조남기 장군. 중국 정협 부주석을 지낸 조 장군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서 태어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1987년 소수민족 최초로 총후군부장에 올랐고, 1998년 정협 부주석에 선출된 뒤 2003년 은퇴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인민지원군 사령부 작전처 장교로 근무하면서 평덕화이 지원군 사령관 통역을 맡았다. 당시 러시아어 통역을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의 맏아들 마오안잉과 한 숙소에서 지내기도 했다. 6·25 참전과 조선족 출신을 배경으로 군 고위직에 오른 조 장군은 2000년 5월, 2004년 6월 두 차례 방한했다.

6월 25일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묘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김유나 브라질 한류문화원장, 상파울루 시 이민자 자문위원회에 선출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올해 신설한 인권부의 이민자대표 자문위원회에 한인 1.5세인 김유나(37) 한류문화원장이 선출됐다. 8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유일한 한국계로 6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그는 "이민자 커뮤니티 가운데 소수인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이민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선 이민자를 위해 시에서 제작한 가이드북의 한국어판 발행을 추진하고 코리아타운인 봉헤치로가 한국문화 거리로 조성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6살 때인 1988년 가족이민으로 브라질에 이주한 김 씨는 상파울루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2006년 이 대학에서 한국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올해 신설한 인권부의 이민자대표 자문위원회에 한인 1.5세인 김유나 한류문화원장이 선출됐다.

를 받았다. 이후 포르투갈어로 된 '젊은 한국' '한-브라질 이민 50년사' 등 한국을 소개하는 8권의 책을 현지어로 발간했다.

2009~2013년 주한브라질대사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양국 간 다양한 교류 행사를 주관했으며, 2013년 상파울루 삼바 카니발 때 '한국'을 테마로 펼친 카퍼레이드 행진을 기획해 현지 언론에서 '한국 홍보대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6년에 봉헤치로 거리에 한류문화원을 개원해 지금까지 500여 명의 현지인에게 한국어 수업 외에 전통춤, 한식, 종이공예 교실을 열어 한국을 소개했다. 지난해부터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의 '꼬레아온라인' 코너 사회를 맡아 주 1회 한국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과테말라한인회, 화산 피해 지역에 성금·구호품 전달

과테말라한인회(회장 최인규)는 푸에고 화산 폭발로 피해를 본 알로테낭고 지역을 방문해 1만1천 달러의 성금과 3천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인회가 6월 3, 4일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와 이재민 발생 소식을 듣고 진행한 모금 운동에는 현지 한인교회 연합회와 한인 기업, 개인들이 동참했다. 한인회는 가족이 화산재로 덮이는 피해를 본 한-과테말라 다문화가정 2곳을 돕기 위해 1천400달러의 성금과 구호 식량·의류 등도 전달했다.



'미주한인 풀뿌리 콘퍼런스' 7월 미 워싱턴서 연례행사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최대 규모 모임인 '미주한인 풀뿌리 콘퍼런스'(KAGC)는 7월 11~13일 워싱턴에서 연례행사를 연다. 이 콘퍼런스는 풀뿌리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한인 유권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정치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24개 주에서 600명 이상의 한인인과 20여 명의 연방 의회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KAGC.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한인네트워크, 서울사무소 개설...
오픈하우스로 운영**

재외동포 단체인 세계한인네트워크(이사장 김영근·사진)가 6월 8일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모국을 찾는 동포들이 정보를 나누고 협의 기능도 하는 '오픈하우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설립한 이 단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지부를 뒀으며 매년 '재외동포 정책포럼'을 열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
8월 뉴욕서 '4차 산업혁명' 주제로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서광순·사진)는 8월 1~4일 뉴욕 세인트존스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이란 주제로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1971년 출범한 미국 내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모임인 KSEA가 1991년부터 마련하는 연례 학술 행사다. KSEA는 초창기 한인 1세대만 참여했지만, 지금은 1.5~2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대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아중동 한인들,
실명위기 모잠비크 주민 백내장 수술 후원**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한인 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와 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가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있는 모잠비크 주민의 수술을 후원한다. 이들 단체 회원은 7월 한 달간 모잠비크에서 의료봉사활동 '아이 캠프'(Eye Camp)를 펼치는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이사장 김동해 명동성모안과원장)의 활동을 지원한다. 아중동 한인들은 지난해 구간다에서 전개한 '아이 캠프'를 후원해 130여 명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했다.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공모

한국문학번역원은 7월 17일까지 '2018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독일 이미르크의 '암록강은 흐른다'부터 미국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김은국 '순교자', 이민진 '파친코' 등 해외 동포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 18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회에 응모하려면 지원서와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의 독후감을 이메일(leeyoomi@klti.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은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산가족 상봉 · 귀국 운동에 헌신... 사할린 동포의 대부 박노학 회장

2014년 11월 8일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 국내에 영주귀국으로 정착한 사할린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추진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고(故) 박노학(1912~1988)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 회장의 동상 제막식이 열린 것이다. 제막식에는 전국 23곳의 사할린 영주귀국자협의회 임원과 안산 고항마을 거주 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의 권경석 회장은 “박 회장은 1950년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0여 년간 잊었던 사할린 한인의 존재를 한국과 일본에 알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영주귀국에 헌신한 분”이라며 “탄생 100주년을 맞아(호적상 1914년생)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흉상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사할린 한인 1세가 점점 세상을 뜨면서 박 회장의 공적을 아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을 우리가 기려야겠다는 생각

에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형편이 어렵지만, 십사일반 모금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충주 출신의 박 회장은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다. 사할린이 1945년 종전과 함께 소련 영토로 편입되자 일본은 자국민의 송환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 국적이던 한인들은 무국적자가 돼 발이 묶였다. 박 회장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덕분에 1956년 부인과 함께 사할린을 떠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귀환선에서 사할린에 남은 동포를 돕겠다고 결심했다.

일본에 도착한 뒤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사할린 억류 한인의 처지를 알리고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도쿄에 있던 주일한국대표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1958년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를 조직해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들의 고국 귀환을 위해 힘써온 고(故) 박노학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 회장(왼쪽).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는 2014년 11월 8일 사할린 영주귀국자가 모여 사는 경기도 안산시의 '고항마을'에서 박노학 회장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평생토록 사할린 한인의 귀국에 매달렸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1960년부터 사할린 거주 한인 편지를 고국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이었다. 당시 한국은 소련과 미수교국이어서 직접 편지를 전달할 수 없었다. 사할린에서 도쿄에 거주하는 박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면 박 회장이 고국에 있는 큰아들 박창규 씨에게 보내고, 박 씨가 전국 각지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방식이었다.

아버지의 뜻깊은 사업에 감동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박창규 씨는 '수취인 불명'이라는 글자가 찍혀 돌아온 편지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수소문해 가족에게 전달했다. 30년간 박 씨 부자가 전달한 편지는 3만여 통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7천여 명의 사할린 거주 한국인 귀환 희망자 명단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는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사할린과 고국의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 꿈에 그리던 가족 재회를 돕는 이산가족 상봉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988년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장]

“
사할린 거주 한인 편지,
고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
”

‘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한 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 박세은 씨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로 활약 중인 박세은(29)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 브누아 드 라 당스 조직위원회는 6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 수상자로 박세은을 선정했다. 박세은은 조지 발란신의 안무작 ‘보석(Jewels)’ 3부작 중 ‘다이아몬드’ 주역 연기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이날 시상식에서 “상에 크게 감사한다”며 “아주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수한 동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음에 크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브누아 드 라 당스’는 1991년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가 발레의 개혁자 장 조르주 노베르(1727~1810)를 기리기 위해 제정하고 이듬해 시상하기 시작한 세계적 권위의 상이다. 한 해 동안 세계 각국 정상급 단체가 공연한 작품을 심사 대상으로 해 매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실비 길렘, 줄리 켄트, 이렉 무하메도프 등 세계적 발레 스타들이 이 상을 받았다. 박세은은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수상자다. 발레리나 강수진(1999년), 김주원(2006년)과 발레리노 김기민(2016년)이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박세은은 1669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발레단인 파리오페라발레의 제1무용수로 활약 중이다. 파리오페라발레는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등과 더불어 세계 최정상 발레단으로 꼽힌다.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오페라발레에 입단해 2012년 6월 한국 발레리나로는 최초(한국인으로)는 발레리노 김용걸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발레단 정단원으로 발탁된 뒤 초고속 승급의 역사를 쓰고 있다.

2013년 ‘코리페’(군무의 선두·파리오페라발레 무용수를 나누는 다섯 등급 중 네 번째)로 승급한 데 이어 2014년 ‘쉬



6월 5일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러시아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시상식에서 한국 발레리나 박세은이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제’(솔리스트급·세 번째 등급), 2016년 ‘프리미에르 당쇠즈’로 올라섰다. 파리오페라발레 입단 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에서 금상을 비롯해 2006년 미국 IBC(잭슨 콩쿠르)에서 금상 없는 은상, 2007년 로잔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는 등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세 곳을 휩쓸며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로잔 콩쿠르 입상 특전으로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세컨드 컴퍼니인 ABT 스튜디오 컴퍼니(ABT II)에서 1년여간 활동했으며, 국립발레단 등에서도 활동하다 파리오페라발레에 진출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파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많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대에 올리고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파리 발레단에선 정년이 42세까지만인데 정년 때까지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싶고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지 프랑스에 남을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창]**

“
프랑스 파리서 활동...
한국 무용수론 네 번째
”

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30명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4개국에서 온 30명의

고려인 교사는 6월 14일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5주간 수준에 따른 분반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교수법을 배우며 사물놀이·서예·민화 등 한국전통 실습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수기간 창덕궁,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파주 통일 전망대 견학과 서울·제주도 탐방에도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어를 거의 잊고 살아온 고려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음법과 글쓰기 수업 등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려인 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정체성 단절을 극복하고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고려인 교사 초청연수를 펼치고 있다.



재단은 6월 14일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개회식을 열었다.

러시아·CIS 고려인 청년 인천재능대서 직업연수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청년의 거주국 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주류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를 인천재능대에서 펼치고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44명은 6월 20일 인천재능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한식조리, 뷰티헤어, 뷰티메이크업, 사진·영상 촬영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재단은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44명을 초청해 3개월간 인천재능대에서 직업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수 기간 한국어 교육, 산업체 탐방, 한국문화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며 국내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동포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가 거주국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3개월간 한국의 선진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도 배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거주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우성 이사장 "재외동포, 군 창설에 공헌"... 합참서 특강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6월 19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강당에서 지휘부 간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를 소개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간부가 참석한 특강에서 한 이사장은 '국군과 재외동포'를 주제로 우리군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기여와 군사적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에서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와 육군무관학교, 임시정부 공군 양성기관이었던 월로우스 비행학교, 재미동포로 세계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 최초 비행장교였던 박희성, 월로우스 비행학교 창설 자금을 지원한 재미독립운동가 김종림 등 대한민국 군 발전 공헌 사례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한 이사장은 강연 후 "공군 창설의 기원이 됐던 비행학교 등 재외동포가 우리 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한 교육이 지속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합참이 간부들의 지식과 교양 함양을 위해 시행하는 '합참아카데미'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



한우성 이사장이 6월 19일 합참간부를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소개 특강에 앞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면담을 했다.



바른 말 고운 말

이빨과 아가리

신체 부위의 명칭에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지어서 붙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빨'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지 않고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좀 점잖게 부를 때는 '치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간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기구나 기계 등의 가장자리에 뾰족하게 나온 톱니 따위를 가리켜서 '이' 또는 '이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그릇 등이 상해서 잘게 이지러진 부분을 가리켜서 '이'라고도 하는데 '이 빠진 그릇'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가리'라는 말은 그릇이나 물건을 내놓는 입구를 말하는 것으로 '병 아가리가 좁다' 또는 '주머니 아가리를 벌린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리'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입'을 가리키는 속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아가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액체는 엉기고 실은 엉키고

"고깃국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더니 기름이 엉켰어요"
 '엉기다'와 '엉키다'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엉기다'는 '기름이 엉긴다, 피가 엉긴다'와 같이 어떤 액체가 한데 뭉쳐서 굳어진다는 뜻이 있고, '그 집 담벼락에는 담쟁이덩굴이 서로 엉겨 있어요'처럼, 무엇이 한데 얽히고 엇갈린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일을 척척 해 내지 못하고 허둥거릴 때, '왜 그렇게 일을 빨리 못하고 엉겁니까'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간신히 기어갈 때도 '엉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엉키다'는 원래 일이나 물건이 서로 얽혀서 풀기 어렵게 된다는 뜻을 가진 '엉클어지다'란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엉켜서 잘 빗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털실이 엉켜서 풀지 못하겠어요'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018년 6월호 정답

별	초	지	죽	계	시
금	상	침	화	두	메
화	자	투	리	산	골
한	가	위	수	만	년
	화	산	입	국	
제	주	도	장	기	차
	마	정	미	소	
세	간	살	이	동	서
도	산	품	파	추	수

▶ 오른쪽 방향 열쇠

1. 부모 형제 친척이 서로 헤어져 있는 가족
4. 한글을 창제한 조선 시대 임금
6. 석가모니가 이 나무 아래서 도를 닦았다
7. 연평도와 함께 남한 최서북단에 있는 섬
9. 정월 대보름날 밤하늘에 동실동실 떠 있는 큰 달
11.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상인이 모여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
13. 법적인 권리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해지'와 비슷한 말
14.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
16.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19.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로 한국이 중주국임
21. 지하로 낸 도로
23. 우리나라의 국가
25. 추석을 일컫는 우리 말
26. 방패 모양의 네모난 연

▶ 아래쪽 방향 열쇠

2. 산을 수호하는 신령
3. 한 씨족의 혈통과 계통에 관하여 기록한 책
4. 아침에 일어나 손과 얼굴을 씻는 것
5. 음력 정월 보름날
7. 신라, 고구려와 함께 3국 시대를 구성한 나라
8. 농촌의 반대말
9. 몸을 보호하는 약
10. 1년 중의 일, 월, 요일, 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놓은 것
12. 간장, 된장 등의 항아리를 놓아두는 높직한 대
13. 바다를 지키는 군대
15. 대구 과의 바닷물고기로 예전에는 동해에서 많이 잡혔으나 지금은 수입에 의존한다
16. 신에게 두 손 모아 소원을 비는 일
17. 안부나 소식 따위를 알리기 위한 글
18. 바다에서 이는 큰 물결
20. 서로 술을 권하면서 부르는 노래. '권○○'
22. 억울한 일, 딱한 사정 등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
24. 책이나 물건을 넣어, 메거나 들고 다니기에 간편하도록 만든 용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김은경(호주)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늦더위라 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늦게까지 더위가 남아 떠나지를 못한다고들 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분명 가을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내일 최고 기온 예보가 문득 와 있는 가을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대낮의 그 더위는 분명 한여름의 그것과는 다르다. 햇볕은 살갗에 아주 따갑고 땀 흘리며 '웬 더위야' 하면서도 선뜻 선뜻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덥다가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 그렇게 자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재앙을 갖고 왔네요"라는 통탄의 답을 화면에 담기 위해 열심히 취재를 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국 피디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가뭄이 왔지만 때가 되면 비가 내려 줄 것이고... 뭐,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주. 지구 최남단의 커다란 섬나라에 그렇게 계절이 가며 자연의 섭리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 계절을 어느새 서른일곱 번 넘게 맞이하고 있다. 서른 일곱 번.

어느 날 문득 느껴졌다. 아, 어느새 내가 태어난 곳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여기서 살아낸 시간들이 더 많아졌구나 라는... 그 스스로 대견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이유 불분명한 서러움이 묻어 있는 느낌.

"남의 나라 생활 37년이 어디 만만하기만 했겠느냐."

존경하는 한국의 한 작가 선생님은 내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울컥 눈물이 났던 것 같다. 왜냐고 누가 물어온다면 딱히 내놓을 답은 없다.

새삼 지금 힘든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닌 건 물론이고, 무슨 개척 이민이나 망명을 온 것도 아니니 힘들고 서러워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나 잘살겠다, 내 가족 잘 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고향 땅 뒤로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라고 뭐 다른 건 없다.

어찌어찌 먼저 호주 땅에 정착하게 된 아버지 덕(?)에 결정권은 커녕 자기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것에도 아직 확신이 없던 나이에 '가족 이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와서 산지 어느새 그만큼.

가끔 방문하는 한국에 가면 한국인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호주에서 살아가며 호주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자리를 지켜 온 게 어느새 그 만큼의 세월이 되었다는 그것뿐이다.

떠나올 때는 '에이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희망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애국자의 대열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된다.

너희들이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알기나 하느냐고 200년 조금 넘는 짧은 역사를 가진 호주를 슬쩍 알잡아 보기도 하고 잠시 방문한 가수 '싸이'는 내 아들 내 삼촌인 양 공연히 어깨 힘주며 자랑을 일삼으며 '이민자'들은 해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애국자',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누가 이민 가라고 등 떠밀었던가? 아니다. 정말 살 수 없어서 야반도주라도 했던 것인가? 그도 아니다.

그런데 공연히 그렇게 서러웠다. 패배한 느낌,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그 서러움. 그래서 호주인 앞에서는 한국인이라 자랑스러운 척 하고 한국 방문길에는 선진국 호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 받은 일인지 은근히 자랑질 하며 떠들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서러워라 했다.

한국에 있었다면 지성 갖춘 학부모 되었을 것을 공연히 남의 나라 와 사느라 겪은 조바심이 한두 번이던가. 받아 온 유인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준비물 제대로 챙겨 보내지 못한 엄마 될까 두려워 아는 단어도 사전에서 확인을 하고 또 하며 스스로를 한심해 했던 나날들.

머릿속에서는 이만큼 멋진 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굴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발음 때문에 혹시 내 말이 잘못 전달될까 두려워 본의 아닌 과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빠들.

하루 새에 호주 수상이 바뀌었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선거도 없이 한 나라의 수상이 바뀌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답답해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설치해 놓은 한국 위성 TV를 뚫어져라 보게 되는 시간들.

이런 저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에 쑥 들어오는 고국의 뉴스라야 뭐 그리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되었다느니, 앞으로 이리저리 하면 될 것이라느니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평을 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해지곤 한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는 여기 와 살고 있으니 이제 자꾸 한국으로 가는 관심 좀 끄고 여기 정치 형태도 좀 배우며 여기에 집중하며 살자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어디 한 켠은 늘 거기... 바로 두고 온 내 나라 떠나 온 내 고향에 걸쳐 놓을 수밖에 없다.

그 돈이면 다른 나라 구경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에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었다가도 마치 철새처럼 한국을 찾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일 년 사 계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내 나라의 소중함은 더 깊어만 간다.

거기 이제는 기억 희미해지는 어린 시절의 내가 좁은 골목 어디에서 빠끔히 고개 내밀어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광화문, 바람 유별나게 세계 불던 당주동 골목 어귀에 세상의 슬픔이나 고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건방진 스물의 내가 아직 서성이고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첫사랑이 어디선가 머리 허연 노인이 되어 살고 있을지도 모를 곳.

남의 나라 와 참 열심히 살다가 결국 그 '남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가 버린 내 엄마의 꽃다운 소녀 시절이 묻어 있을 정동 어디쯤이 아직 남아 있는 곳.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래, 시험공부하며 달달 외웠던 그 시구처럼 그저 그림다 말을 하면 터져 버릴 눈물 알기에 아닌 듯,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 온 것이지.

이제는 그림다 말을 해도 괜찮다.

열심히 참 바쁘게, 뒤 돌아 보지 않고 결눈질도 하지 않으며 잘 달려왔다.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뚫어오르는 그리움, 잘도 다독이며 살았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워 할 거다.

하얗게 내린 설악산 눈이 보고 싶으면 겨울에 비행기 표를 끊을 것이고, 문득, 두릅나물이 못 견디게 먹고 싶어서면 붉기운 가득한 여행 가방을 꾸릴게다. 더 많은 세월 지나 딸아이가 안겨주는 손주가 물어오면 두런두런, 옛날 얘기처럼 해 줄 거다.

“옛날에 할머니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정말 작은 가방 하나 달랑 싸서 즐망즐망한 아이들 데리고 이 나라에 왔더라. 참 깊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라. 그림다고 말하면 눈물 나게 더 그리워질까 봐 다독다독 마음 여미며 그렇게 살았는...”

그 그리움을 조그마한 그 아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이토록 사무쳤던 그리움이 아마 아름다운 추억 되어 파랗고 하얗고 또 노란 풍선처럼 마음에 두둥실 떠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설렘이 있으니 말이다. **장**



대나무 향기 은은한 담양의 향토 건강식 ‘대통밥’

떡갈비 등 풍성한 반찬과 요리로 정식 밥상은 ‘먹거리 향연’ 방불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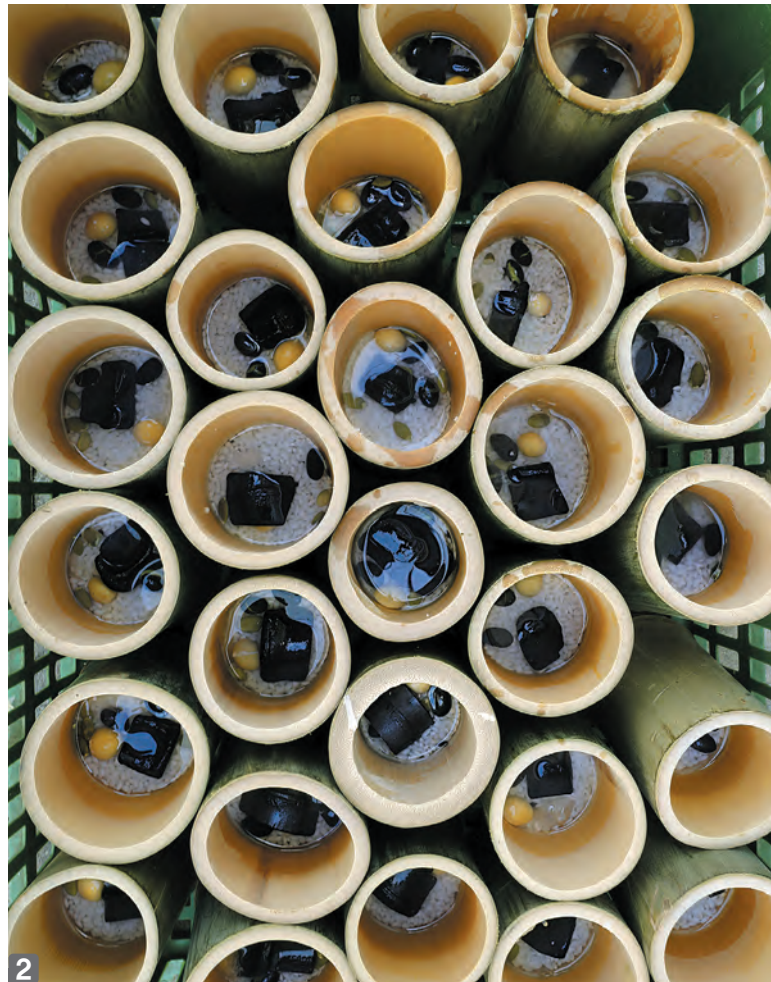


1. 대통밥 거리 모습.

2. 압력밥솥에 찌기 전의 대통밥. 쌀, 은행, 콩, 해바라기 씨 등의 고명이 대나무 숯과 함께 담겨 있다.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은 대통밥이다. 좋은 식재료와 청정한 대나무의 속 깊은 만남! 죽통밥이라고도 하는 대통밥은 대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기로 식도락가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에 죽순무침, 떡갈비 등 다양한 요리와 반찬이 곁들여진 대통밥 정식은 남도의 풍성함을 갖춘 영양 만점의 밥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밥은 대나무통에 쌀과 다른 곡물을 함께 넣어 맛깔나게 찌낸 밥이다. 전남 담양군이 내세우는 대표적 향토음식이다. 국내 최대의 대숲인 죽녹원 주변에만 16곳의 대통밥 식당이 성업할 만큼 찾는 이들이 많다. 근래 들어서는 성인병 예방 등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인기가 높다. 1990년대에 대나무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밥을 내놓는 식당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통의 대나무 고장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죽순 요리와 죽엽주 정도를 만들어 먹던 담양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였던 셈이다. 이로써 대통밥은 떡갈비와 함께 담양 음식을 대표하는 쌍



2

두마차 역할을 하게 됐다.

대통밥 그릇으로는 왕대가 주로 쓰인다. 추위에 약해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자라는 왕대는 죽세공의 주재료로 사용됐는데 크기가 큰 데다 결이 곧고 단단해 대통밥 그릇 용도로도 적격이다. 3년 이상 자란 왕대의 대통을 자르면 멋지고 실용적인 밥그릇이 탄생한다.



대통밥의 조리법은 찹쌀, 조, 흑미를 잘 씻어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뒤 대통에 넣는다. 이때 쌀은 죽통의 60% 정도만 채우게 하고 그 위에 물이 1cm 정도 올라오도록 붓는다. 그리고 은행, 밤, 잣, 대추 등의 고명을 얹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통들을 압력밥솥에 넣고 대통 높이의 절반 정도로 물을 채운다. 이어 한 시간 가량 열을 가해 찐 뒤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 꺼내면 맛있는 대통밥이 완성된다.

밥을 짓는 동안 녹아내리는 대나무의 하얀색 내피인 죽여는 심장과 폐의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여주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밥에 타이로신 성분이 배게 하는 죽력은 당뇨병과 신장 질환에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맛 좋고 영양 많은 대통밥은 정식 상차림 덕분에 더욱 빛난다. 20여 가지의 풍성한 반찬과 요리가 한 상 가득 놓이는 정식은 식객들의 입맛을 충족한다. 떡갈비는 물론 계장, 묵사발, 밀쌈, 연근 샐러드 등 갖가지 음식들이 합류해 밥상은 흡사 먹거리들의 향연장을 방불케 한다. 한 번 사용한 대통은 두 번 다시 상에 올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죽여와 죽력 등 대나무 특유의 성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당들은 대통밥을 먹고 나면 사용한 대나무 통을 손님이 가져가는 걸 허용한다 [\[참\]](#)

- 3. 푸짐하고 맛갈스러운 대통밥정식 상차림.
- 4. 돼지떡갈비.
- 5. 대숲에서 막 솟아오르는 왕대 죽순.

담양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소쇄원 → 한국가사문학관 → 식영정 → 명옥헌 → 송강정 → 면양정 → 한국대나무박물관 → 죽녹원 → 관방제림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대중교통

시외버스: 서울-담양(3시간 45분)
1일 4회 운행

식당정보

향교죽녹원(061-381-9596)
한상근대통밥집(061-383-9779)

메타세쿼이아 길

대통밥 정식을 먹은 뒤에는 담양 특유의 역사문화현장을 둘러보면 금상첨화다. 가사문학의 산실이자 정자문화의 고장이기도 한 담양에는 소쇄원, 식영정, 면양정, 송강정, 명옥헌 등이 산재해 있는데 죽림원에 있는 시가문화촌에 이들 정자가 대부분 재현돼 한꺼번에 그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담양 대표 명소인 죽녹원에서 죽림욕을 즐기며 죽로차를 마신 다음 바로 앞의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을 거닐며 상쾌한 자연의 향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수령이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줄지어 서 있어 그 풍취가 일품이다. 그 끝에 이르면 담양의 또 다른 유명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결돼 녹음의 환상적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재단 서귀포로 본부 이전해 제주시대를 개막

재외동포재단은 7월 13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서귀포시 제2청사(서귀포시 신중로 55)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며, 동포단체지원부, 교육지원부, 차세대사업부, 한상사업부, 홍보문화부, e-한민족사업부 등 8개부서가 모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재단은 제주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자리인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4층에 13명의 직원을 잔류시키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부서별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해 재단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처리와 제주본부를 연결하는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올해로 21년을 맞은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사회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만큼 제주이전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제도시 제주도와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높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www.hansang.net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United Hansang, Driving Korea

제17차 세계한상대회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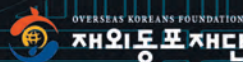
2018. 10. 23(화) _ 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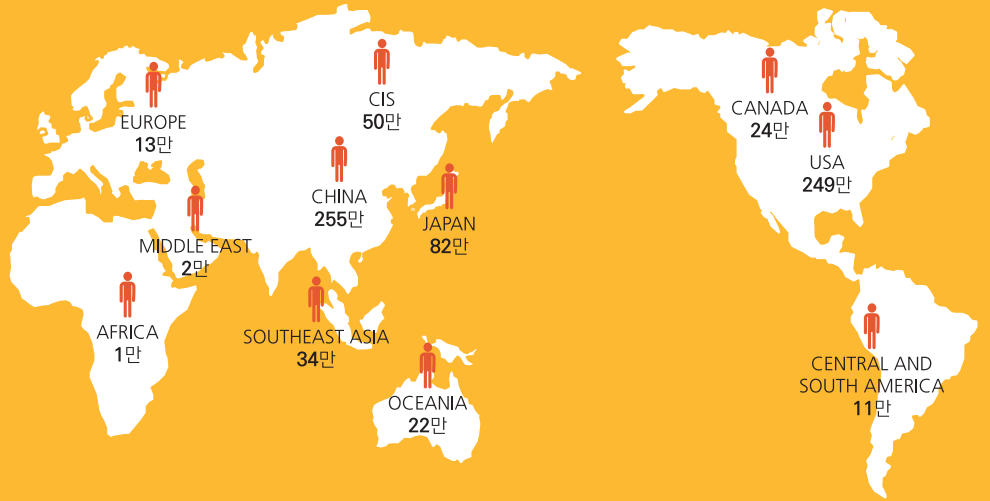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MBN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